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5. 19.(금) 06:00 < 5.19.(금) 석간 > 배포 2023. 5. 18.(목)

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

- 산업혁신운동 3.0 성과점검 및 향후 방향 논의
- 협력사 생산성 혁신지원을 위한 사업성과 점검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5.19.(금),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10년간 산업혁신운동 3.0에 참여한 대기업·중견기업 및 공기업과 함께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,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.

* 참고: 참석기관 등 간담회 개요

산업혁신운동 3.0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주도형 기업 간 협력사업*이다. 70~80년대 공장새마을 운동(산업혁신운동 1.0)의 자조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. 그간 2·3차 협력사에 국한하던 지원을 협력사가 아닌 미연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총 11,781개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해왔다.

* 2013년 발족하여 10년째에 접어들었으며, 올해 2단계('18~' 23)가 종료될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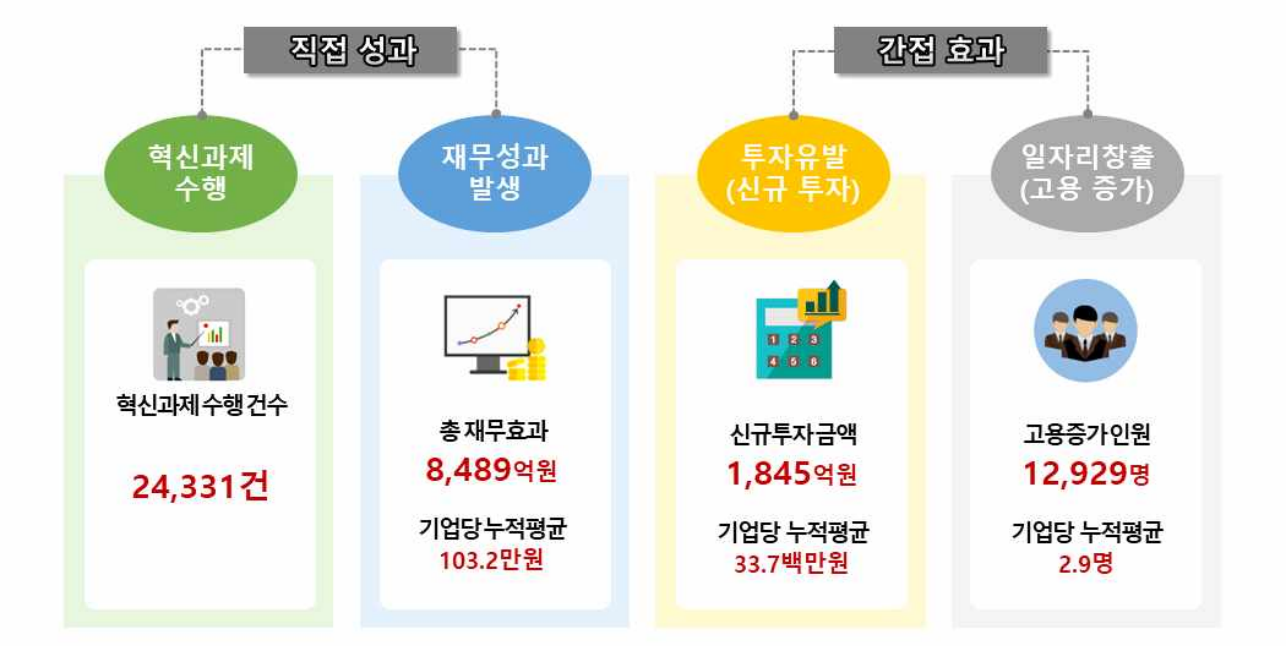
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산업혁신운동 3.0이 업종별 산업 생태계 전반의 생산성 혁신은 물론, 무형자산인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. 아울러, 기업의 자율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,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3단계 기획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	책임자	과 장	양정화 (044-203-4220)
		담당자	사무관	황동황 (044-203-422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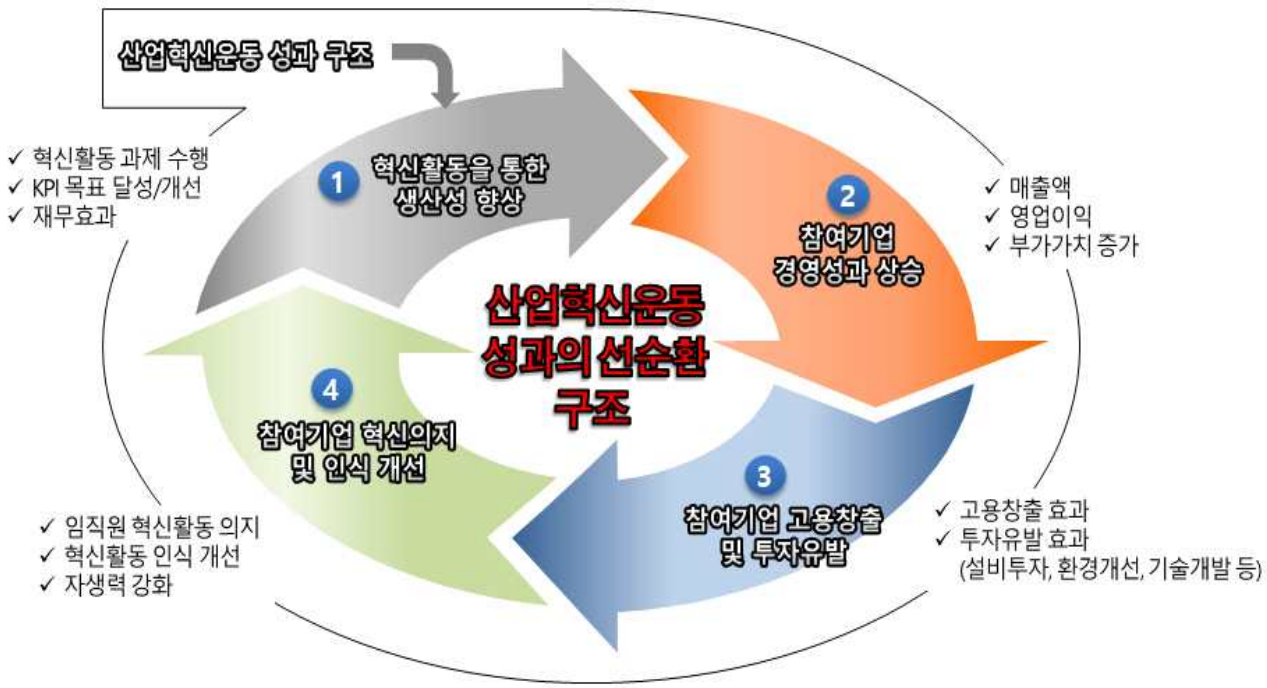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**산업혁신운동 3.0 주요성과 및 선순환 구조**

□ 산업혁신운동 3.0 주요성과



□ 산업혁신운동 3.0 선순환 구조



참고 2 산업혁신운동 3.0 및 간담회 개요

□ 산업혁신운동 3.0 개요

❍ (개념) 70~80년대 공장새마을 운동(1.0)의 자조 정신을 계승하고, 대기업

- 1차 협력사 중심 산업혁신 활동(2.0)을 2·3차 협력사까지 확대(3.0)
- 2·3차 협력사가 대기업·1차 협력사·전문가 지원으로 기술혁신, 작업환경·생산공정 개선 등 자발적 혁신운동을 전개

【산업혁신운동 3.0 개념】

	산업혁신 1.0	⇒	산업혁신 2.0	⇒	산업혁신 3.0
(주 체)	개별 기업		대기업·1차 협력사 중심		2·3차 협력사 등
(수 단)	공장새마을 운동		동반성장		공정·경영·생산기술 혁신

❍ (연혁) '13.6월, 산업혁신운동 3.0 1단계 발족
→ '13.8 ~ 18.7월 (1단계) → `18.9.~`23.12월 (2단계)
* 단계구분 : 출연금 협약기간(5년) 기준

❍ (지원 내용) 공정·경영·생산기술 등 생산성 혁신 컨설팅 등

❍ (재원·성과) 대기업·중견기업·공기업 109개사 출연금 총2,693.5억원을 조성하여 11,781개사 참여기업 지원(`13~`22년)

□ 간담회 개요

❍ 일시/장소 :'23. 5. 19.(금) 10:00 / 대한상의 중회의실B

❍ 참석자

(대기업: 7개사) 포스코,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SK텔레콤, 효성중공업, 롯데웰푸드, SK실트론, GS리테일 등

(공공기관: 12개사) 가스공사, 가스안전공사, 서부발전, 중부발전, 남부발전, 한국수력원자력, 한전원자력연료, 한전KDN, 교통안전공단, 인천공항공사, 인천항만공사, 울산항만공사 등

(단체: 5개 기관) 대한상의, 표준협회, 생산성본부, 석화협회,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